

## 보 도 해 명 자 료 (13. 11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 입법예고, 외국카지노 ‘시저스’ 특혜의혹”  
기사에 대한 입장 (13.11.1, 머니투데이 등)

### 1. 기사 내용

□ 산업부가 9월 입법예고한 ‘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’ (이하 ‘경자법’) 개정안에서

- 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‘신용상태’ 항목을 ‘자금능력과 수행 경험’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 해외카지노 업체를 위한 특혜
- ② 해외카지노 자본의 국내진출은 장기적으로 오픈카지노(내국인 출입 카지노)를 겨냥한 ‘선점효과’를 노리는 것임
- ③ 공모제로 심사 진행 시 현행(60일+추가 30일)보다 심사기간이 줄어 (60일) 제반 과정의 줄속 진행 및 관할관청 재량권 행사 제약 우려

### 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① 허가 요건 중 ‘신용상태’ 대신 ‘자금능력과 수행경험’으로 변경한 것은 해외카지노 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

□ 입법예고시 포함된 사항은 다수의 세계적 복합리조트 운영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안이었음

- 카지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를 위해서는 미화 5억 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법적 요건이나, 세계 상위 10대 복합리조트 운영사 중 단 1개사만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

- 이에 따라 현행 규정 유지시 세계적 복합리조트 운영사의 국내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‘신용상태’ 대신 ‘자금능력과 수행경험’으로 요건을 변경하고자 한 것임.

□ 그러나, 입법예고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‘신용상태’라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,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시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

- ② 해외카지노 자본의 국내진출은 장기적으로 오픈카지노(내국인 출입 카지노)를 겨냥한 ‘선점효과’를 노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

□ 산업부 차원에서 오픈카지노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, 카지노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와도 동 사안에 대해 협의한 바 없음

- ③ 공모제로 심사 진행 시 현행(60일+추가 30일)보다 심사기간이 줄어 (60일) 제반 과정의 줄속 진행 및 관할관청 재량권 행사 제약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

□ 입법예고 기간 중 동일한 의견이 제출되어 사전심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,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음

※ 관련 문의 : 지식서비스투자팀 이종석 팀장(02-2110-3871), 윤선민 사무관(3876)